

韓國肉鷄產業의 垂直統合(系列化) 展開狀況

朴永寅

韓國肉鷄產業發展協議會

(1991. 1. 25 接受)

Evolution of Vertical Integration in the Korea Broiler Industry

Young In Park

Korea Broiler Industry Development Council

(Received January 25, 1991)

SUMMARY

The broiler industry in Korea has been gradually changing its structure of independent operation into integrated and coordinated production and marketing system. It was in 1960s when the broiler industry first tried the integrated effort, but never succeeded as it was expected since due mainly to growers' attitudes favorable for traditional operation and agribusiness' passive response on structure change. Until mid 1980s, however, a bit of partially integrated system had been evolved by several factor suppliers. Recent years have furthered its progress toward completely integrated pattern, the ultimate goal of broiler integration.

It is true that the external factors including the GATT Negotiations through the Uruguay Round stimulated the people involved in the industry to find the way of making it competitive to survive in the open, liberalized world economic system rapidly emerging through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Once the industry realized the necessity of reducing the cost of production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it, the conclusion tended to come to the point of an entire structural alteration by means of integration rather than an improvement of a certain segment such as marketing. It is very obvious, therefore, that the movement toward the complete integration will speed up in a coming few years under the leadership of not only entrepreneurs but also producers group.

According to a report, there were three almost complete integrators and thirteen partial integrators as of December, 1990, all of which eagerly directed toward the completely integrated system in due course. Among others as an advantage of integrated structure, the cost saving must be pointed out as the greatest one. In a survey, it was estimated that the cost of dressed and ready-to-eat chicken could be lowered by 31.8 percent and 41.5 percent, respectively, over that to be under the independent, non-integrated system.

As long as everybody concerned about the future of the industry in the open market mechanism realizes the importance of the structure change through an integration, the broiler sector of Korean agriculture shall be moving toward the direction of vertically and completely integrated structure in order to make it competitive, even to export, hopefully before 1995 or by the end of this century in any case.

I. 緒 論

韓國肉鷄產業은 1960年代에 肉用專用鷄가 導入된 이래 꾸준히 成長해 왔다. 鷄產物의 消費規模가 확대되고 輸入禁止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國內飼育은 끊임 없이 늘어난 것이다. 技術도 개발되고 飼育規模도 차츰 커졌다.

그러나 1970년대 後半에 企業經營의 產業體系를 필요로 했던 構造改編時期를 놓치고 계속하여 傳統的 獨自經濟體系에 安住함으로써 肉鷄產業은 生産과 流通, 價格과 商品性, 그리고 消費者 서비스면에서 時代에 적응치 못하는 投機產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種鷄輸入에서 鷄肉消費에 이르기까지의 10餘 段階 各 부문이 個別的으로 獨立經營하여 需給, 價格, 品質의 不均衡問題가 提起된 것이다.

肉鷄產業組織의 現代적 體系인 垂直統合방식이 한국에서 부분적으로 試圖된 것은 1960년대이나 經濟, 社會的 與件이 成熟치 않아 1980년대 中半까지는 이렇다할 成果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다가 學界의 規範的 研究와 勸獎, 飼育者協會의 關心과 教育 및 政府의 部分的 支援에 힘입어 1980년대 後半에 이르러서야 統合主體의 積極性과 飼育主體의 理解增進으로 마침내 統合體系로의 經營構造 전환이 본격화 한 것이다.

특히 1990년의 UR 協商 막바지 過程에서 世界的인 貿易 自由化가 분명해짐에 따라 國際競爭力 培養의 共感帶가 형성되자 肉鷄產業 및 關聯部門은 統合體系의 定着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데 認識을 같이 하게 되고 그 결과로 垂直統合은 빠른 속도로 進陞되고 있다.

그래서 本考는 현재 展開되고 있는 韓國肉鷄產業의 垂直統合 狀況을 概括的으로 살펴보고 周邊與件 및 今後展望까지도 洞察하여 이 부문의 發展史的 資料로 쓰여질 수 있게 하려고 한다.

II. 肉鷄產業을 둘러싼 與件變化

1. 貿易自由化와 UR 協商

18세기에 Adam Smith가 自由貿易을 제창한 이

후 西歐諸國에서는 自由貿易과 保護貿易에 대한 논쟁이 國益을 기준으로 하여 지속되어 왔다. 그러한 추세는 全世界의 經濟富國으로 번졌고, 二次大戰 이후 1948년에 결성된 GATT(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 協定) 體制에서는 世界的인 自由貿易을 지향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86년에 시작한 GATT의 多國籍協定(Uruguay Round)은 商品 이외에 서비스 부문도 확대, 취급함은 물론, 상품부문에는 그동안 例外로 다루어오던 農產物도 포함시켰다. 이 UR 協商은 各國의 利害가 참여하게 대립되어 1990년의 時限內에는 妥結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自由貿易은 강화되어갈 전망이다.

따라서 地球化(globalization)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貿易自由化는 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國際環境의 變化는 肉鷄產業도 이제는 한 國家의 산업에서 世界的 산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시키지 않을 수 없게 하고 있다.

2. 競爭力과 生産性 提高의 切迫性

現代는 격심한 경쟁속에서 發展해 가는 시대이고 肉鷄產業도 國內外的인 여러 競爭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地球經濟體制에서 살아남기 위한 경쟁의 필요성은 매우 切迫하기만 하다.

어떻게 하여 國際競爭力을 높일 것인가? 이것이 最大課題이다. 市場이 開放되고 나면, 즉, 금후 鷄產物 貿易이 自由化되면, 경쟁력이 있을 경우는 國內需要充足은 물론 輸出까지도 가능하여 육계산업은 계속 發展할 것이고 경쟁력이 없을 때는 國內需要의 상당 부분이 輸入으로 充當하게 되어 육계산업은 斜陽化를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競爭力의 基礎는 生産性이다. 또 생산성은 技術的 效率(technological efficiency)과 經濟的 效率(economic efficiency)에 달려 있다. 기술 및 경제 효율이 증대되면 生産費를 낮추고 品質과 衛生수준을 높여 消費者가 원하는 形態, 時期 및 場所에 鷄產物을 공급하게 되어 비로소 競爭力이 생기는 것이다.

육계산업은 이제 生産성과 競爭力을 提高해야만 生存이 가능한 그런 시대상황에 놓여 있다. 어떤 政策의 保護에 의해 殘存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國際

化 추세의 公開競爭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그밖의 다른 選擇은 존재하지 않는다.

3. 最適方法論을 찾는 젊은 世代의 立場

時代狀況에 敏感한 것은 역시 젊은 세대라 할 수 있다. 비교적 豐饒로운 환경에서 開放化의 물결을 몸에 익히면서 자란 世代가 狀況變化에 적절하게 對處하는 능력이 優越하다. 經營的인 感覺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肉鷄産業의 既成世代는 1970년대 후반, 生産에서 流通과 消費, 個別 經營에서 全體産業으로 그 관심의 방향을 돌렸어야 했다. 그러나 말로만 그리했을 뿐 行動에 옮기는 勇氣가 不足하여 육계산업을 投機業으로 만들고 말았다. 數個月 사이에 병아리 값이 배로 뛰고 몇 週가 지나는 동안에 生鷄價格이 折半으로 떨어지는 지경에까지 몰고 온 것이다.

그러나 近來에 이르러 貿易自由化와 國際競爭力의 深化現象에 대해 말이 아닌 行動으로 反應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30대의 젊은이들이다. 이들은 生存을 위한 最適方法論을 찾으려 했고 한번 確信이 서면 즉각 推進하는 그런 發展世代의 經營姿勢를 보이고 있다. 지난 날의 육계산업에서 보지 못한 新鮮한 與件變化라 하지 않을 수 없다.

III. 經濟統合에 대한 關心高潮

1. 規範的 統合勸獎에 대한 受容 雰囲気

韓國肉鷄産業에서 統合體系가 처음 試圖된 것은 브로일러 肉用種이 수입되기 시작한 1960년대였다. 이는 美國의 1950년대, 日本의 1960년대와 비교해 볼 때 조금 이른 감이 있었고, 결국 그 成果가 좋지 않았다. 우리의 여러 事情으로 보아 한창 經濟成長을 이룩하던 1970년대가 適期였을 것 같다.

그래서 1970년대 후반부터는 一般理論과 外國의 經驗을 바탕으로 한 規範的 統合體系가 소개되기 시작했다. 必要에 의해 당연히 登場해야 할 經營組織이었는데도 不信風潮, 市場不安, 開發危險, 政策不實 등으로 이 體系의 活用이 遲遲不進하자 이를 안타까이 여긴 學術研究부문에서 하나의 規範으로 韓國의 類型을 設定, 提示한 것이다. 그후 글과 모임을 통해 이 體系는 끊임없이 勸獎되어 왔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에 대한 産業의 關心은 차츰 높아갔고, 完全統合에 가까운 企業主導의 체계도 착수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企業의 數와 經營能力에 문제가 있고 飼育者의 소위 한탕주의 體質과 企業에 대한 不信이 본질적으로 고쳐지지 않아 統合體系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 가운데 試行錯誤만을 거듭했다.

하지만 最近에 이르러 産業周邊의 狀況變化가 급격하고 특히 開放化의 威脅이 엄습함에 따라 統合經營에 대한 필요성을 節減하는 窮圍氣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 企業은 利潤追求를 위해, 그리고 飼育者는 自救策으로 통합체제의 특징인 機能分擔, 즉 農民과 企業家의 合作事業(farmer-businessman joint venture)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2. 統合主體의 意慾의 挑戰

통합체제의 二次支柱는 統合主體(integartors)와 飼育主體(growers)이다. 전자의 기능은 企業 또는 協同組合이 맡는다. 그래서 사육부문인 1次産業機能 이외의 生産資材, 屠鷄, 加工부문인 2次産業機能과 流通, 外食부문인 3次産業機能을 專擔하는 것이다.

한국육계산업에 통합체제가 浮沈한 지난 한 世代동안 統合主體로 등장한 것은 그 대부분이 種鷄를 가진 孵化業體였다. 飼料業體가 그 자체의 事業을 連繫擴大하여 統合主體로 變身하지 않은 점은 매우 韓國의 人 史實로 기록될 것이다. 變化를 원치 않고 安易한 經營만을 바라던 한 시대의 産業屬性을 그대로 나타낸 때문이다.

그러나 最近의 狀況은 아주 다르다. 젊은 世代가 주축이 된 企業統合主體(H社등)가 나타나는가 하면 몇몇 飼料業體(D社등)까지도 이에 合流하여 主體그룹의 의욕이 매우 挑戰的이다. 또 法定協同組合(C조합 등), 사육자株主인 會社形態(P社), 사육자와 기업인이 合作 設立한 經營體(T社)등 統合主體의 경쟁이 熾烈하다.

3. 飼育主體의 認識 變化

농민은 일반적으로 保守的의이다. 한국의 肉鷄飼育者는 그 대부분이 規模나 收入面에서 일반 農民의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래도 덕거리(食品原料)를 생산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도 보수적인데가 많다. 게다가 오랫동안 經營

不安에서 體得한 投機的 氣質이 알게 모르게 몸 깊숙이 스며 있다. 따라서 既存肉鷄 飼育者는 統合體系의 飼育主體가 되는 것을 주저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난 10여년간 統合主體에 대한 사육자의 反應은 대개 否定的이거나 아니면 별로 好感을 보이지 않았다. 우선 기존 經營體系에 어떤 變化가 생기는 것이 不安하고 經營主權을 빼앗긴다는 것 또한 마음에 들리 있지 않은가. 그래서 統合體系의 出現을 傍觀 내지 懷疑視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 體系가 아무리 費用을 낮추고 品質을 좋게 하며 機能에 比例한 配分으로 共存共生하려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지금과 같은 獨自體系보다 나올 것인지 아니면 못할 것인지 不確實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한 農民의 姿勢라 하겠다.

그러던 것이 요즘에 와서는 統合體系에 대한 認識이 肯定的인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한국육계 산업은 國際競爭力을 가져야 하며 統合이 新規農家와 더불어 급속하게 進行됨에 따른 飼育競爭의 威脅, 그리고 經營不安에서 벗어나려는 自衛防禦的 意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하여 企業 또는 協同統合體系의 사육주체가 되든가 아니면 獨自經營體로 남던간에 全產業이 統合되어 競爭力을 키우는 課題가 最優先임을 인식하기에 이른 것이다.

4. 政府資金支援

畜產業가운데 養鷄부문은 政策優先順位에서 肉牛, 酪農, 養豚부문에 밀리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특히 肉鷄부문은 政策對象에서 除外되다시피하여 自由市場體制를 滿喫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던 중에 政府가 肉鷄統合에 關心을 보인 것은 1985년의 “닭 系列化事業促進”시책이 처음이다. 닭고기 需給 및 價格安定과 流通改善에 기여케 하기 위하여 農家와의 契約生産, 병아리 및 飼料代 일부 지원, 生鷄의 責任 收買를 조건으로 하는 政策을 펴기 시작한 것이다. 그후 정부는 이 시책을 지속하여 8개의 系列業體(기업체 6, 사육자 단체 2)에게 각각 2억 5천만원의 資金을 지원하고 屠鷄場의 現代化를 도모하는 등 統合推進을 지원해 왔다.

UR 協商으로 國際競爭力 提高가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 1991년에는 이 사업을 더욱 擴大하여 完全統合을 指向함과 동시에 業體當 融資限度도 25억원으로

늘리고 각종 施設改善을 위한 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政府의 統合體系 支援은 시대상황에 적응하는 政策으로 評價되며 이 體系의 早期定着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5. 產業發展協議

육계산업의 經營構造가 전통적인 獨自經營으로 새로운 統合經營으로 바뀌어 가는 過程에는 언제나 여러 형태의 副作用과 陣痛이 있게 마련이다. 특히 部分統合을 模倣한 似而非主體(예: 병아리/사료-사육-생계수거체계의 사기성 운영)가 여기저기서 나타나 統合體系의 定着을 阻害하는 사례가 많다. 그래서 1989년에 韓國肉鷄產業發展協議會를 結成, 이러한 問題點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1) 構成

육계관련 統合主體, 飼育主體, 生産資材供給業體, 屠鷄, 加工, 流通 및 外食業體, 團體, 學界 및 研究界등 대표 총망라

2) 性格

統合體系를 통한 육계산업의 發展基盤을 확립하기 위하여 각 부문의 대표들이 Task Force로 참여, 활동하는 限時的인 協議體

3) 實行要綱

- ① 統合經營體系의 早期定着
- ② 統合要素 및 支援機關의 協力體系 強化
- ③ 統合主體와 飼育主體間의 理解 增進
- ④ 닭고기 費用의 30% 節減 및 消費/輸出 促進
- ⑤ 產業 各部門의 共存共生

4) 活動狀況

- ① 月例 協議會 개최-당면문제 綜合 協議調整
- ② 月刊 “육계 뉴스”제작 배포
- ③ 統合經營관련 세미나 主觀 또는 支援
- ④ 각종 國內外 資料 수집, 발간
- ⑤ 先進外國視察 추진
- ⑥ 기타 協議를 필요로 하는 事項

이러한 發展協議會의 운영은 肉鷄統合展開를 순조롭게 하고 있다. 각 부문의 水平的 機能專門化(horizontal specialization)를 수행하는 당사자끼리 모여 垂直的 機能統合(vertical integration)을 획책하기 때문이다. 이는 韓國農業分野에서 처음 시도하

는 垂直化 機構로 金후 他部門에도 授用이 可能할 것이다.

IV. 垂直統合의 展開狀況

1. 統合體系에 대한 認識 程度

통합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형태는 契約統合(contract integration)이다. 즉 통합주체와 사육주체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相互利益을 위한 共同經營體系를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兩主體의 이 체계에 대한 올바른 認識이 매우 중요한 先決要件이다.

統合主體는 통합체계에서 2, 3차 산업기능자인 동시에 統合經營者이다. 따라서 통합주체는 이 體系의 意思決定과 經營을 총괄하는 管理者로써 주어진 機能을 제대로 발휘해야 한다. 특히 協同組合의 경우, 많은 사육자가 단합된 經營組織을 통하여 이 기능을 담당해야 하므로 현대 協同組合의 經營技法 및 統合目的에 대한 認識이 투철해야 한다. 따라서 統合主體는 이러한 認識을 분명히 한 다음 統合體系를 착수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飼育主體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왜 統合이 필요하며 사육자의 기능과 위치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야 한다.

최근의 한 研究에 의하면 統合體系에 대한 사육자의 認識이 상당히 긍정적이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調査對象者의 64%가 이 체계를 절대적으로 選好하고 있다.

통합체계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대상 飼育者의 44%가 스스로 계약사육자가 되었고 51%는 계약조항을 잘 이해하고 있다. 또 63%는 통합주체와 同伴者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66%는 독자경영때보다 有利하다는 응답이다. 따라서 현재 사육자의 統合體系에 대한 認識은 매우 滿足한 수준은 아니나 統合初期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당히 긍정적인 反應이라 할 수 있다.

2. 水平機能의 特化

육계산업을 구성하고 있는 각 段階의 水平的 要素로는 種鷄, 孵化, 飼料, 藥品, 器具, 飼育, 屠鷄, 加工, 流通, 外食부문 등이 있다. 이들 각 요소는 현재 상당한 水準의 特化와 동시에 非特化가 共存하고 있는 형편이다.

種鷄는 輸入 또는 國產原種으로 충당하며 孵化種은 오히려 亂立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飼料, 藥品, 器具도 적절하게 供給되고 있다. 이와 같이 生産資材부문은 상당수준까지 特化되어 있으나 대부분 독립된 經營體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價格과 品質의 문제는 그대로 尙存한다.

飼育者는 그 수가 줄고 規模는 커지는 경향이다. 그러나 아직도 獨自經營이 지배적이고 生産性이 비교적 낮다. 특히 施設不備, 疾病管理, 出荷前의 節食문제 등이 남아 있다. 人力難때문에도 施設의 現代化는 시급한 과제이다.

屠鷄加工은 飼育과 함께 가장 뒤진 機能부문이다.

Table 1. 통합체계에 대한 사육주체의 반응

질 문	응 답	%	질 문	응 답	%
참여동기	스스로	43.9	독자경영 대비	유 리	65.9
	외부의 권유	29.3		불 리	2.4
	기 타	26.3		기 타	31.7
계약조항 이해	충 분	51.2	금후 계획	계 속	63.5
	대 충	39.0		상황검토중	34.1
	기 타	9.8		기 타	2.4
통합주체와의 관계	동반자	63.4			
	불평등	21.7			
	기 타	14.9			

자료: 韓國肉鷄産業의 系列體系와 그 效果分析. 한국육계산업발전협의회, 1990.

Table 2. 육계관련 수평기능 수행업체수(개략)

기능	업체수	기능	업체수
종계장	230	사육	3,500
부화	180	도계	71
사료	61	유통	수만
약품	68	외식	수백
기구	50	(가맹점)	수천

施設, 衛生, 製品面에서 現代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生鷄商의 委託屠鷄가 아직도 盛行하고 冷却, 衛生檢査, 部分肉, 加工鷄肉(ready-to-eat chicken)에 개선할 여지가 많다.

屠鷄品 流通은 슈퍼마켓 經路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재래식 露店 去來형태가 그대로 남아 있다. 또 屠鷄以前에는 대부분의 生鷄가 商品으로 流通되는 실정이다. 部分肉 流通과 콜드체인은 차츰 늘어나고 있다.

근래에 鷄肉消費를 크게 자극하는 것은 外食業의 活性化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料理 이외에도 후라이드 치킨, 양념통닭 등이 外食의 主流를 이루고 있다. 특히 양념통닭은 全國에 수백개의 本社(franchisors)

와 수천개의 加盟店(franchisees)을 갖고 있어 상당히 混亂한 상태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水平機能은 지금 그 特化정도가 부문간에 不均衡을 이루고 있다. 그러한 周邊條件은 이들 기능의 專門化에 의한 生産性 向上을 강력하게 促求하고 있다.

Table 2는 현재 수평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各要素의 業體數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3. 垂直機能의 統合

기존 水平機能은 점차 垂直的으로 統合되어가는 과정에 있다. 獨自經營에서는 水平機能이 개별적으로 수행되다가 部分統合이 전개됨에 따라 차츰 統合體系

Table 3. 주요 統合主體別 統合상황 요약표

(1990년 12월 31일 현재, 가나다순)

통합주체	종계	부화	사료	사육	도계	가공	유통	외식
(주) 대경	×	×	○	○○	○○	×	○○	×
(주) 대연식품	×	×	○	○○	○○	○	○	×
(주) 대한브로이	○○	○○	○	○○	○○	○	○○	○
무산곡산(주)	×	○	○○	○○	○	○	×	○○
(주) 부경	○	○	○	○○	○	×	×	×
상경농장	○○	○○	○	○○	○	×	○	○
(주) 성우식품	×	○○	○	○○	○○	×	○	○
(주) 영육농산	○	○	○	○○	○○	○○	○○	×
유림상사	○○	○○	○	○○	○	×	○	×
(주) 유성브로이	○○	○○	○	○○	○○	○	○○	×
제주가금처리장	○	○	○	○○	○○	×	○○	×
천호인티그레이션(주)	○○	○○	○	○○	○○	○○	○○	○
축산업협종조합	×	×	○○	○○	○○	×	○○	×
(주) 하림식품	○○	○○	○	○○	○○	○○	○○	○
한국 153 유통	×	○	○	○○	○○	○	○○	○○
한일식품(주)	○○	○○	○○	○○	○○	○○	○○	○

의 한 要素로 參與하게 되고, 나아가 完全統合의 수준에 이르면 모든 수평기능이 單一管理下에 놓이게 된다.

1990년말 현재 統合體系는 Table 3과 같이 16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3~4개 업체는 이미 完全統合에 가깝고 나머지는 部分統合 수준에 머물러 있다. 통합요소 가운데 飼育과 屠鷄부문의 統合程度가 가장 높고 種鷄, 加工, 外食부문의 統合이 낮은 편이다. 또 대부분의 통합체계는 企業主導로 되어 있어 飼育者 中心의 統合 出現을 권장해야 할 것 같다.

垂直統合體系의 市場占有率은 1990년말 현재 34%인 것으로 집계되었다(“육계뉴스”, No. 13 참조) 이는 1년전의 15%에 비해 괄목할 만한 伸張이라 할 수 있다. 이중 完全統合에 가까운 3個社의 比重은 全國物量의 12%, 統合物量의 40%에 육박하고 있다.

4. 主要契約條項

계약통합에서는 契約條項이 매우 중요하다. 통합주체와 사육주체간의 權利, 義務 및 利害關係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統合初期에는 계약 내용에 대한 關心과 是非가 많으나 얼마동안 경험하고 나면 相互依存과 信賴의 共存關係임을 알게 된다.

統合體系의 주요 계약 조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계약목적과 계약 當事者
- 입추首數와 계사 休止期間
- 계약場所와 계약日字
- 屠鷄肉 販賣
- 계약期間
- 사육자 報酬率과 精算
- 계약雙方의 權利, 義務
- 각종 記錄
- 계약規模
- 자재와 생계의 所有관계
- 시설, 기구, 勞動, 資材의 공급
- 稅金과 保險

- 사육管理와 飼育指導
- 經營의 意思 決定
- 出荷體重과 計量
- 계약 不履行에 대한 制裁
- 生鷄收集과 屠鷄
- 계약 調整과 更新
- 폐사와 각종 事故處理
- 계약 當事者의 法的 關係

한국육계산업협의회는 1990년에 대한 양계협회와 함께 “肉鷄系列生産標準契約書”를 제정 배포하여 統合契約에 基準이 될 수 있게 했다. 이 標準指針은 계약의 基本原則, 계약期間 및 數量, 資材의 供給, 飼養管理, 폐사와 事故處理, 자재의 任意處分 禁止, 出荷, 飼育者 報酬, 飼料要求率, 계사의 休止期間, 담보 및 보증인,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 계약의 解止 등에 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Table 4는 統合體系의 契約內容에 대한 사육농가의 反應이다. 一方의이며 主觀的인 의견이지만 한번 참고해 볼만하다.

이직 契約飼育에 대한 경험이 日淺한 관계로 사육농가의 反應을 一般化하여 評價하기엔 無理가 있으나 이 조사의 주요 條項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임을 볼 수 있다. 다만 폐사율은 折半 가까이 不利하다는 意見인 바 不合理한 條項이 있다면 언제나 相互協議하여 변경해야함은 물론이다.

5. 統合主體의 費用節減效果

육계산업이 統合體系로 전환하면 水平的인 기능 專門化와 垂直的인 기능 統合 및 이에 따른 技術開發과 經營合理化에 의하여 費用節減, 商品性 向上, 消費促進, 需給 및 價格安定 그리고 産業發展의 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一般理論이다.

그중에서도 費用節減의 效果는 統合體系를 필요로 하는 첫째 名分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이에 대한 最初의 實證的인 分析이 1990년에 試圖된 바 있고 앞

Table 4. 契約內容에 대한 飼育主體의 反應(%)

항 목	농가에 유리	適 切	농가에 불리
사료 요구율	19.5	43.9	36.6
폐사율	4.9	48.8	46.3
사육자 보수	12.2	48.8	39.0
출하 체중	9.8	68.3	21.9
계약 보증	2.4	61.0	36.6

자료 : 韓國肉鷄産業의 系列體系와 그 效果分析, 한국육계산업발전협의회, 1990

Table 5. 단계별 肉鷄生産費 節減 可能性

단 계	統 合(A)	非統合(B)	절감 가능성(B-A)
 원 %
生鷄 1.5kg	1.211	1.474	17.8
屠鷄肉 1.0kg	1.452	1.924	24.5
料理鷄肉 1.0kg	2.220	3.265	32.0

자료 : 韓國肉鷄産業의 系列體系와 그 效果分析. 한국육계산업발전협의회. 1990

으로도 계속하여 研究해야할 과제이다.

Table 5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資料를 분석하여 얻은 肉鷄生産費의 段階別 節減效果이다.

이 연구에 의하면 生鷄 17.8%, 屠鷄肉 24.5%, 料理鷄肉 32.0%의 生産費 節減이 가능한 것으로 計算되었다. 그러나 販賣價格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이보다도 훨씬 높아 屠鷄肉 31.8%, 料理鷄肉 41.5%에 이를 것으로 推定되었다.

이와 같이 통합체계는 개별경영체계보다 30%이상의 消費者價格 引下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V. 今後의 展望

1. 完全統合指向

위에서 개략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肉鷄産業은 必야호로 統合體系를 지향하는 構造로 改編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拍車를 가하여 명실상부한 統合肉鷄産業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獨自經營은 部分統合, 부분통합은 다시 完全統合의 方向으로 개편, 補完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完全統合이 지배하는 産業體制를 형성하여, 統合主體와 飼育主體로 機能兩分하고 企業統合과 協商統合이 상호 競爭하는 能率의 體系가 확립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많은 계열 주체의 登場과 消滅, 統合體系間의 統合 및 사육주체의 定着實現을 경험할 것이고 요즈음 橫行하고 있는 似而非 部分統合은 저절로 자취를 감출 것이다. 또한 경쟁력 있는 일부 사육자는 獨自經營體로 殘存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完全統合産業이 可視化되기까지는 여러 體系가 共存하면서 相互補完, 善意競爭하는 산업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限定된 資源을 잘 活用하고 불필요한 浪費를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國際競爭力을 갖는 산업으로 育成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 豫想問題點

統合推進過程上的 많은 豫想문제점은 今後 그 대부분이 저절로 풀려 나갈 것이다. 우리의 文化와 知識水準으로 보아 國內외적 與件變化에 대응, 生存하는 對策임을 認識하기만 하면 그 合理性에 대한 追從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 부문에서 經驗하고 있다.

統合初期의 問題點들, 즉 새로운 體系에 대한 당사자 및 支援機關의 理解不足, 계약 쌍방간의 相互不信, 사육자의 被動的 姿勢, 사이비 部分統合의 사육자 현혹, 非統合 관련업체의 完全妨害, 지원기관의 미온적 統合支援등과 같은 沮害要因은 쉽게 제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統合推進의 核心課題와 관련되는, 선발 統合主體의 經營未熟 및 危險관리체계 未洽, 기존사육자의 意思決定權 상실에서 오는 잠재적 不滿, 사육자가 주도하는 協同統合의 不振등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상당한 기간동안 관심의 대상이 될 것이다.

3. 産業發展主導

統合體系는 앞으로 육계산업의 骨格이 되어 산업발전을 주도할 것이다. 그동안 각 부문에 介在하고 있던 水平的 問題點이 綜合的으로 해결되어 競爭力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게 할 것이다. 따라서 CQC(Cost-費用切感, Quality-商品性 向上, Consumer-消費

者 滿足) 目標達成에 의하여 국내 消費增加와 外國輸出促進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肉鷄價格은 金후 다른 食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價格騰落은 점차 줄어들 것이다. 統合經營은 規模의 經濟, 販賣費의 節約, 絶稅 및 利潤中心點의 單一化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統合經營의 一貫體系는 鷄肉品質 및 衛生管理를 철저히 하여 商品性을 크게 높인다. 어느 단계의 管理疏忽도 결국은 統合主體의 不利益으로 歸結되는 이유에서이다.

垂直統合은 消費者를 指向하는 經營체계이다. 따라서 소비자 위주의 價格, 品質 및 기타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自體商標를 宣傳하여 消費伸張을 도모한다.

위와 같은 여건을 갖추게 되면 肉鷄產業은 安定發展할 수 있는 順坦한 길을 찾게 될 것이다. 현재의 統合過程은 반드시 그날이 오게 하여 産業발전을 主導할 것으로 전망된다.

VI. 結 言

韓國肉鷄產業은 바야흐로 完全垂直統合을 향하여 構造 改編해 나가고 있다. 이는 지난 1세대동안 겪어온 統合을 위한 여러 施行錯誤와 최근에 엄습하고 있는 國內外的 與件變化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國際競爭力 提高의 絶박한 必要性에 대한 共感과 젊은 世代의 意欲의 推進이 통합전개를 促進하고 있는 것 같다.

육계산업은 현재 非統合과 部分統合이 주류를 이루고 일부는 完全統合에 가까이 接近하고 있다. 그러나 非統合은 부분통합으로, 部分통합은 다시 完全統合으로 급속하게 지향하고 있어 産業全體가 獨自經營에서 統合經營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構造 改善과정에는 많은 抵抗이 있고 沮害要因이 여러 곳에 介在하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垂直統合體系가 時代的 要請에 따라 순조롭게 展開되어 가기 위해서는 統合當事者들의 긍정적 意識과 努力은 물론, 統合支援機關들의 協助가 絶對적으로 필요하다. 그중에서도 政府의 資金支援과 産業發展을 위한 垂直的 協議調整이 必須的이다.

韓國肉鷄產業은 앞으로 完全垂直統合이 主軸을 이루는 效率的인 體系를 구축하여 國內消費에 應答하고 輸出産業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競爭力을 키워갈 것이다. 빠르면 1995년 쯤에 이러한 統合産業의 實體가 可視化되든가, 늦어도 今世期末 以前에는 統合體系가 支配하는 産業으로 정착될 것으로 본다.

VII. 引用文獻

1. 金貞注. 1990. 韓國肉鷄產業의 系列體系와 그 效果分析. 韓國肉鷄產業發展協議會.
2. 大韓養鷄協會. 韓國肉鷄產業發展協議會. 1990. 肉鷄系列生產標準契約書.
3. 朴永寅. 1979. 브로일러 系列化 生産組織에 관한 考察. 家禽學會誌, 6卷 2號.
4. 朴永寅. 1981. 養鷄產業의 安定化 方案. 畜産振興.
5. 朴永寅. 1984. 브로일러 産業의 類似經濟統合. 家禽學會誌, 11卷 1號.
6. 朴永寅. 1984. 韓國브로일러 産業의 垂直統合에 適用可能한 類型研究. 建國大學校 大學院.
7. 朴永寅. 1985. 鷄產物 生産과 流通의 統合. 韓國家禽發達史.
8. 朴永寅. 1985. 美國브로일러 産業의 經濟統合 展開過程. 家禽學會誌, 12卷 2號.
9. 朴永寅. 1985. 養鷄產業安定을 위한 經濟統合의 接近. 畜産經營學會誌, 創刊號.
10. 朴永寅. 1988. 濟州브로일러 産業의 類似經濟統合에 관한 事例研究. 15卷 1號.
11. 朴永寅. 1990. 韓國肉鷄產業의 나아갈 길. 肉鷄產業發展對策세미나 資料.
12. 朴永寅. 1990. 畜協系列化 産業의 必要性和 推進方向. 畜協中央會세미나 資料.
13. 柳哲昊 外. 1989. 養鷄系列化事業의 現況과 發展方向에 관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4. 韓國肉鷄產業發展協議會. 1990. 肉鷄飼養管理 年報.
15. 韓國肉鷄產業發展協議會. 1991. "1990 肉鷄뉴스" 論說.
16. Benson, W. & T. Witzig. 1977. The

- Chicken Broiler Industry Structure, Practices and Costs. Agr. Eco. Rpt., No. 381. ERS, USDA.
17. Henry, H.R. & R. Raunika. 1960. *Integration in Practice-The Broiler Case*. J. of Farm Economics, Vol, 42, No. 4.
18. Roy E.P. 1957. *Economic Integration in the Broiler Industry*. La. Agr. Exp. Sta. Cir. No. 208.
19. Seaver, S.K. 1957. *An Appraisal of Vertical Integration in the Broiler Industry*. J. of Farm Economics. Vo. 39, No. 4.
20. USDA. 1963. *Vertical Coordination in Agriculture*. ERS Rpt. No. 19.